

# 민족 정체성과 실용성의 경계에 선 고려말의 지위 문제

2018115015 박진선

## I. 서론

특정한 민족과 국가는 하나의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언어 공동체가 처한 언어 상황은 개인의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을 결정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인류 이동 과정은 다양한 언어의 접촉을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언어의 변화, 발생, 소멸을 야기한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 양상은 개인, 공동체의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그들이 처한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본래의 거주지를 벗어나서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종속되어 생활하는 데에는 이들의 정체성, 그리고 언어 선택 문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정체성의 차원, 그리고 주변 토착어와의 언어 접촉 문제는 발화자에 있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고려인’은 여타의 민족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고려인들은 우선 모국이 존재하며, 교포사회와 모국 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보인다. 이들은 과거 소비에트,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CIS에의 토착화를 모두 경험했으며, 일부는 현재 한국으로의 귀국하기도 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2020년 1월 기준 8만 7천 명이며,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48만 명이다(김영술 2020: 33). 적지 않은 동포, 고려인은 한민족이지만, 거주국의 국민의 위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생활상을 바탕으로 고려인이 과거부터 겪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이와 충돌하는 언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고려인이 1863년(철종 14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시기에는 한반도의 육진 방언을 토대로 러시아어가 융합한 제3의 언어 ‘고려말’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연해주의 척박한 땅을 일구어 내면서 자급자족의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연해주가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고려인의 수가 급증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는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촌을 형성하면서 집단농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1937년 9월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송명희, 이상갑 2012: 132). 고려인은 스탈린 시기 이후부터의 언어 통일 정책에 의해서 러시아어로의 교체를 경험한다. 이들의 강한 사회 진출 욕구와 적응력으로 인해 러시아어의 사용 양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함께 고려말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어 가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동화 양상이 여타의 소수 민족보다 예외적으로 빠르다는 것이다.

고려인과 같은 이주민에게 있어서의 언어 선택 문제는 다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속성의 상징 고려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류 사회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거주 국어의 구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어는 이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생계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거주국에서의 이주민은,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은 거주국 문화에 스며드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은 계속해서 고려말, 한인으로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고려인 민족성의 결합성, 규모 그리고 실용성 추구에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인의 소비에트, 그리고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언어 상황을 차례로 분석하며,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 고려인의 정체성 보존을 위한 노력의 양상이 있었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된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미친 언어 선택의 동기를 밝히며, 결과적으로 ‘고려말’의 지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II. 고려인의 언어 상황 변천

고려인을 비롯한 소련 시기의 소수 민족의 언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고려인에게도 고려말, 러시아어가 충돌했으며, 소련이 해체된 이후 고려인이 각 독립 국가로 흡수되면서 고려말, 러시아어 그리고 각 독립 국가별 주류 언어가 충돌하게 되었다. 소수 민족은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언어 간 코드 변환을 시도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언어가 주류의 언어로 대체되는 양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고려인도 소비에트 시기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상당한 언어적 혼란을 거쳐 급속도로 러시아어 동화의 길을 걷게 된다. 아래에서는 소련 해체의 전과 후를 기준으로 각각 고려인이 어떤 언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 2-1. 소비에트 시기

소련 시기 고려인의 언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련의 민족어 정책에 대한 선이해가 필수적이다. 1917년의 혁명 직후 집권한 레닌은 사회주의 건설의 완수를 위해서 민중으로까지 당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각 민족어의 교육이 필요했다. 따라서 레닌은 민족 간 평등 이념을 내세우며 언어와 관련한 ‘토착화 정책’을 실시하여 토착 민족어에 대한 공식어로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스탈린 시기가 도래하면서 스탈린은 각 민족 간 협력을 위한 공통의 언어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러시아화 정책’을 실시하여, 러시아어를 초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식어로 지정했다. 이에 토착어로서의 명목어는 계속해서 그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제1언어가 다른 언어로 바뀌는 것을 언어 교체라고 한다. 이는 곧 민족어와 러시아어 사이의 이중 언어 단계에서 러시아어로의 언어 동화, 교체로 이어졌다.

고려인의 언어 상황도 위와 같은 언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인도 1989년 기준 소련 내에 거주하는 438,650명의 소수 민족이었다. 이들의 인구는 소수 민족 중 27번째에 해당하는 중간 크기의 민족이지만, 고려인의 러시아어 동화 양상은 다른 소수 민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극히 예외적으로 빨랐다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심지어는 민족의 언어 고려말조차도 그 사용 양상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고려말을 구사할 수 있는 고려인의 비율이 1959년에는

79.3%에나 달했지만, 1970년에는 55.4%를 기록하더니, 소련 후기 1989년에는 47.2%로까지 급격하게 감소했다. 반면 러시아어로 말할 수 있는 고려인 화자는 동시기 20.5%, 31.3%, 49.4%에 달했다(윤인진 2014: 69). 소련 내 소수 민족 집단 중 자신의 고유 민족어로 구사할 수 있는 비율이 80%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유의미한 특이점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단순히 고려말을,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능력치 기반의 자료가 특정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러시아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고려말도 구사할 수 있는 고려인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고려인이 스스로 설정하는 모어 즉, 제1언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언어 상황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소련 시기의 모국어 상실율을 본다면 그 변화 양상의 추이가 확연히 보인다. 소수 민족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모국어 유지율은 1959년부터 1989년까지 30년 새에 4.8% 감소했지만, 고려인의 경우 32.1%에 달한다. 이는 인구 20만 이상 규모의 소수 민족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다(허승철 1996: 44). 이는 곧 고려인의 언어 교체, 언어 동화 현상이 대규모 집단적 차원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인들의 이중언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려말과 러시아어의 이중언어 양상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모국어 상실 언어 교체’ 즉, 러시아어로 완전히 동화되는 경우와 민족어를 제2언어로 유지한 채 러시아어로 제1언어가 교체되는 경우를 ‘모국어 유지 언어 교체’ 두 경우로 분화되었다. 고려인은 특히나 전자 즉, ‘모국어 상실 언어 교체’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곧 고려말이 빠른 속도로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허승철 1996: 49). 특히나 러시아어를 모어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고려말을 제2언어로 사용하는 통계 수치가 0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러시아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고려말 구사에 더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고려말을 제1언어로 구사하고 러시아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화자가 다수 있다는 것은 소비에트 사회에서 고려말로만 구사하기에는 그 언어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련 당국은 위와 같이 고려인과 같은 소수 민족의 민족어가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지속적인 러시아어 사용을 촉구했다. 이는 곧 민족어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으며, 러시아어 구사와 관련해서는 다소 관대하고 적극적인 언어 정책을 추진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나 고려인의 경우에는 여타의 소수 민족보다 언어 동화 현상, 언어 교체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고려말을 순수하게 구사하는 고연령 세대가 점차 감소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유지하는 고려말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허승철 1996: 50). 이는 곧 소련의 민족어 정책에 따라 고려말이 러시아어 사용으로 대체되면서 고려말의 학습, 교육조차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2.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19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소비에트 연방에 속하던 15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공화국 중 소비에트를 계승함으로써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 국가가 되면서 다중언어 사회로 접어든다. 소비에트는 해체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연방의 언어 정책은 소련의 것과 비슷한 기조를 보인다. 초기에는 ‘러시아연방 제 민족의 언어법’을 통해서 모든 민족어에 평등한 지위를 부여해 주었지만, 명목어와 러시아어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줌으로써 러시아 연방의 각 공화국들이 러시아어를 선택하여 구사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는 러시아어와 민족어 간의 양층언어 상황에 가깝다. 더 나아가 연방은 2002년 법을 개정하여 러시아어를 배제하려는 행위를 독립행위로 간주하면서 ‘통합국가고사’에는 민족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결과적으로 민족어의 언어 교육은 거의 중단되었으며, 중앙화된 러시아어가 강화된다.

고려인은 소련 시기에 러시아인과 여타의 소수 민족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인들로부터의 인정 욕구가 있었지만, 원주 민족을 하층으로 무시하고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이후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서 민족계층체계가 개편되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하층민인 원주 민족이 그들의 새로운 주류계층이 된 것이다(윤인진 2014: 65).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적 정체성, 언어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윤인진(1999)의 연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는 고려인 응답자의 91%가 러시아어를 가장 자유롭게 구사하는 언어로 꼽았으며, 실제로 주류 언어인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와 같은 현지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윤인진 2014: 69). 심지어 젊은 세대조차도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우즈베크어 학습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윤인진 2014: 70). 이는 곧 고려인들이 소련 시기의 연속선 상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각 공화국의 현지어를 배우는 데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언어 상황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어로의 언어 동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고려인들에게는 타 민족어 습득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중 74%가 러시아어를 모어로 인식하며, 언어 능력 수치도 5점 만점에 4.6~4.8점으로 가장 뛰어났다. 반면 고려말은 3점보다 낮았으며, 거주국의 현지어는 2점에 머물렀다. 더불어 각 독립 국가별 대도시 거주자는 러시아어만 사용해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장래에 잘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어’가 ‘현지어’보다 더 많았다. 현지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생계를 위해서 앞으로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은 언어는 현지어로 꼽았다(윤인진 2014: 79-80).

향후 고려인이 현지어, 러시아어, 한국어 중 어떤 언어를 선택하며 어떠한 언어 상황을 이어나갈지는 미지수이다. 고려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고려인은 각 CIS 국가 내에서는 거주하는 소수 민족에 불과하며, 이들이 처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현지어를 습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더 나아가 자녀의 유리한 사회 진출을 위해서 한국어를 습득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 III. 정체성과 실용성의 긴장 관계

앞서 II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에트 시기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고려말 사용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흔히 언어는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언어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고려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렸다던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여타의 소수 민족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던 러시아어로의 동화 정책은 곧 고려인의 언어 선택에 있어서 정체성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III에서는 고려인 스스로가 느끼는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려는 일련의 노력이 실제로 있었음을 밝히고, 이와 대조적으로 빠른 속도로 러시아어로의 언어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고려인의 언어 선택 동기를 밝힌다.

#### 3-1. 고려인의 정체성과 한계

고려인은 거주국과 본국 사이의 끊임없는 정체성의 긴장 관계를 놓을 수 없었다. 외모, 음식 문화는 한인에 가깝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은 거주국의 현지인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은 자신, 그리고 자신의 윗세대에 의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좇았다. 그들의 이러한 정체성 유지 노력은 소련 시기에도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곤 했다. 이러한 고려인의 정체성과 관련한 노력은 민족어 교육, 신문 출간 그리고 문학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실질적인 언어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정체성은 단순한 상징적, 정신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3-1-1. 고려인의 민족어 교육

고려인의 이주 초기에는 조선의 신민으로서 모국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이주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러시아어화를 거부했다. 고려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결속했으며, 자급자족의 형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없어도 소통이 충분히 가능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육진이라고 일컫는 회령, 경원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육진 방언이 곧 고려말이 생성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종원 2016: 23). 이주 초기 당시 고려인의 러시아어화 과정은 더딘 속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고려인들은 분여받은 토지로 마을에 소속되면서 러시아인들과 접촉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한다. 결국, 1880년대부터 고려인 사이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러시아화가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겼다. 심지어는 소외되어 가는 민족어를 교육할 기관도 별도로 없었으며, 본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없었다. 이로써 애국계몽 전까지는 한국어가 지니는 지위가 거의 상실되었으며, 이들의 정체성도 점차 약화하기 시

작했다(이종원 2016: 24).

고려인의 정체성이 부활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의 국외 독립운동이 활발히 시작했을 때부터이다. 특히 1907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된 청년교육회가 계동학교를 설립하면서 한국어, 역사 및 지리 교육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이로써 민족어 교육과 민족교육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의 한인 학교들은 연극제 등을 실시하는 마을의 행사장이자 연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애국 계몽의 일환으로 러시아 본토 내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나갔다.

이후 소련 초기에는 민족어에 의한 교육을 보장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고려인 신문 『선봉』의 「고려인 교원 동무들에게」에서는 교육 언어가 러시아어에서 고려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고려말 학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 바가 있다. 모국어 수업 또한 법제화되면서 고려인도 고려말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적 노력, 다소 자유로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려말, 한국어의 교육 시스템이 부족했다. 특히 교과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자신의 아이들 소비에트의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한국어 교육이 오히려 장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퍼졌다(이종원 2016: 28). 이렇게 의식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차원은 지속해서 대립했으며, 고려말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의 균열을 야기했다.

스탈린 시기가 도래하면 그 상황은 더욱 심화된다. 스탈린은 1929년 ‘대전환의 해’를 선포하면서 레닌주의와 본격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각 민족의 토착화 정책이 폐지되고, 러시아어가 모든 공공적 업무의 공용어가 되었으며, 러시아어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한인의 학교 수가 1/6까지 격감하였고, 학생도 80%나 감소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인들은 모국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했고, 심지어는 한국어의 교육까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환경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스탈린 시기부터 고려인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정체성 보존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듯 고려인은 한국어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그 동화 양상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1-2. 신문 발행

1922년 내전이 종결되면서 연해주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국가의 일원이 되었으며, 소비에트가 요구하는 건설에 뛰어들어야 했다. 당시 대다수의 고려인은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연해주에 대한 애착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전파하고 선전할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매개체는 신문 『선봉』이었다(박선영 2020: 3). 신문은 사회주의의 이념을 선전하기도 했지만, 고려인들만의 민족성을 고취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고려인의 민족 문화 작품을 자주 실었기 때문에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고향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등 민족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스탈린 집권 이후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소비에트 전역에 콜호스를 통한 급격한 농업의 집단화가 이루어진다. 고려인의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문 『선봉』은 고려인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동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발맞추어 신문 『선봉』은 ‘콜호스 신문’으로 전환되면서 지면에 실리는 내용도 변화를 맞이한다. 이에 레닌의 민족토착화 정책이 폐지되면서 고려인 고유의 민족적인 내용은 검열을 피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신문 『선봉』도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다. 이후에는 스탈린의 대숙청이 시작되면서 신문 『선봉』의 고려인 지식인들이 체포되어 희생당하고 말았다. 결국 이는 1937년 9월 12일 출간이 중단되었다. 선봉은 고려인 사회의 유일한 고려말 신문이었으며, 그 창간은 신문 『고려일보』를 거쳐서 현재 『새고려 신문』으로 발행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CIS 국가와 한국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고취시키기도 했으며, 고려인 사회의 의견을 결집하여 보도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문 『선봉』의 주필들을 비롯한 주유 간부들은 실제로 항일운동을 직접 전개하기도 했으며 문화 운동에도 앞장섰다(박선영 2020: 20). 가장 대표적인 신문 『선봉』은 이후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출간되면서 고려인 사회를 결속시켰고, 고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함양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소련 정부의 검열을 통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활동이 자유롭거나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곧 그들의 정신적 작용과 현실의 충돌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한풀 꺾이게 된 예시로 볼 수 있다.

### 3-1-3. 민족 문학

고려인이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모국과의 직, 간접적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CIS 지역은 특히나 모국문학과 단절된 상태였다. 이들은 장기간 집단생활을 했음에도 독자적인 문단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 고려인 작가들은 별도의 활동 영역으로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했으며, 1923년부터 이어졌던 『선봉』, 『레닌기치』, 『고려일보』의 문예면을 채우는 등 다소 소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김정훈, 정덕준 2006: 340). 이는 곧 고려인의 삶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인고의 역사를 보내면서 각 시기별로 다른 문학적 활동 양상을 보였지만, 시기를 막론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체성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했다.

19세기 말엽 이후 고려인의 연해주 거주 시기에는 일제 강점기하의 조선이 처한 현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민족 해방에 대한 확신을 다소 걱정적으로 노래하며, 이들의 처참한 일상을 고발한다. 이는 곧 연해주 지역까지 불어왔던 사회주의의 바람과 함께 본국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사회주의 혁명과 항일운동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김정훈, 정덕준 2006: 344). 하지만 스탈린 집권 이후 문학교육을 받은 신인 작가의 활동이 중단되고, 독자층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 그 이후 세대들은 한글을 애써 배우기보다는 러시아어를 이상어로 사용하면서 러시아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모국어 즉, 고려말로 글을 쓰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위협했고, 자연스럽게 고려인의 민족 문학이 위축되기 시작했다(김정훈, 정덕

준 2006: 346).

조국에 대한 향수를 노래하는 문학, 그리고 소련의 제도를 비판하는 문학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슬픔과 불안을 문학 속에 담는 문학이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학은 소비에트 당국을 찬양하며 찬동하면서 생존을 꾀하는 모습도 보이는가 하면, 스탈린 사후에는 한글로 문학 활동을 할 것을 주장하는 문학가도 등장하게 된다. 정체성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던 고려인은 그들이 처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자 노력한다(김정훈, 정덕준 2006: 352). 애환과 향수가 모두 담긴 고려인의 문학은 그들의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나간다.

하지만 언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의 향후 전망은 순탄하지 않았다. (송명희, 이상갑 2012: 138)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소련이 해체된 후 한글 해독 능력을 갖춘 고려인의 윗세대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한글문단이 지속적으로 쇠퇴할 수 밖에 없었다. 언어의 위축은 문학의 위축을 야기했으며, 이는 곧 그들의 정체성이 특별한 노력 없이는 그대로 보존될 수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영역에서, 좁은 수단으로, 적은 독자층을 위해서 민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했던 고려인 문학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3-2. 고려인의 언어 선택 동기

고려인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본국에 높은 애착을 가졌으며, 이들의 정체성의 수준도 상당했다. 이는 위에서 볼 수 있었던 일련의 정체성 보존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론 II에서처럼 실제로 고려인은 빠른 러시아어 동화 정책 양상을 보였다든 것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고려인 집단 내에서도 대부분이 고려말이 아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곧 고려인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원론적이고도 규범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렀으며, 언어 선택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들은 한인들과 결속력을 다지면서 단체적으로 생활한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체성은 단순한 정신적, 상징적 의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체성 이외의 어떤 요인이 그들의 언어를 급속하게 변화시켰는가? 여기서 1) 사회 진출 욕구(경제적 요건) 2) 수적 열세와 자치행정의 부재를 바탕으로 그 답을 내리고자 한다.

#### 3-2-1. 사회 진출 욕구

고려인은 사회 진출 욕구가 여타의 소수 민족보다 월등하다. 따라서 이들은 대도시,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척박한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실제로 소련 해체 이후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겪고 있을 때에도 고려인들은 여타의 민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했다. 최한우(2004)의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고려인 응답자 중 40%가 대학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러시아 연방의 평균 대학진학률이 10.5%에 불과했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매우 월등한 학력 수준을 가졌다(최한우 2004: 295). 이와 같이 고려

인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심지어는 대학 진학 등을 고려한 교육열 140여개의 민족 가운데 아르메이나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최한우 2004: 296).

특히나 고려인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스크바 거주 고려인들의 이주 동기 중 대부분이 자녀교육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답한 바가 있다. 이는 곧 경제문제와 자녀의 교육 문제를 동일시하여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결과를 보면, 70% 이상의 소련 고려인이 경제, 사회,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도시로 이주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최한우 2004: 300). 더 나아가 이들이 선택한 거주 지역과 관련해서도 자녀교육,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모스크바 거주민들의 경우에는 90%가 넘는 대부분의 고려인이 경제, 교육적 목적으로 이주했다고 응답한 바가 있다(최한우 2004: 302).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려인들은 러시아인과 원주 민족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면서 원주민족보다 상당히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지녔다. 따라서 이들은 러시아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으며, 반대로 하층민 원주 민족과 거리감을 두려고 했다(윤인진 2014: 65). 이러한 양상 또한 여타의 소수 민족과 비교했을 때의 고려인의 사회 진출 정도, 성공의 정도가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고려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자연스럽게 러시아어에 대한 학습의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며, 주류 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끊임없이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통계 분석은 시대, 장소를 막론하고 고려인의 사회적 진출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려인은 고려인만의 사회와 공동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회 진출,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목적으로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고려인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주류 언어, 경제적 활동의 주류 언어인 러시아어로의 동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높은 도시 정착률과 전문직 종사를 위한 러시아어로의 언어 동화 양상은 고려말의 사용의 감소를 야기했다.

### 3-2-2. 수적 열세와 자치행정의 부재

한 민족의 정체성은 그들의 결속력, 정신적 의지 차원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 자체의 민족 규모가 주류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다면, 더 나아가 그들의 자치, 그리고 행정을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득이하게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고려인들은 민족적 차원에서만 보았을 때 결코 주류 사회가 될 수 없었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이주해온 소수 민족이며, 주류 사회에 편입하려는 욕구, 그리고 고유의 전통,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신적 의지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언어를 지켜내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았다.

앞서 언급된 고려인들의 상당한 사회 진출 분위기에 불구하고 고려인은 독자적인 자치 시스템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른 소수 민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유의 문화를 구축하고 결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없었다. 민족적 차원의 정체성 보존의 시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렀고, 더 결속된 자치의 형태로 나아갈 수 없었다. 고려인 사회가 독자적인 자치 행정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이 각자 도시로 이주하게 만들었으며, 고려인은 결과적으로 점차 주류 사회에 스스로 편입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현실적 한계는 규모가 더 작은 다른 소수 민족에 비해서 더욱 빠른 러시아어 동화 양상을 꾀도록 만들었다. 현재까지도 고려인은 CIS 각국,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독자적인 자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련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연합 체계에서조차도 종족성은 각종 공적 문서에 기재되며, 현재까지도 교육, 직업, 이동의 자유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고려인은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할 때 그 밖의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고려말로는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고려인들은 불가피하게 러시아어를 학습해야 했다. 특히나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만, 고려말을 제2언어로 사용하는 화자가 부재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어를 사용한 이상, 공식적인 지위에서 고려말을 습득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가이 일리아(1998)에 따르면 여타의 타타르족, 그루지아족 등 소수 민족은 주변 같은 종족인들간의 동일한 언어, 문화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지만, 고려인은 단순히 자신의 부모가 고려인이라는 점 그리고 고유한 음식문화로부터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윤인진 2014: 67). 이는 곧 고려인의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언어적 차원에서까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분석된다. 이는 곧 고려인의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소수 민족과는 달리 그 집단 자체의 행정 자치의 부재로 인해 정체성 유지에 한계를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러시아어 동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 3-3. 고려말의 향후 지위

고려인의 언어 특히 고려말의 향후 지위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려인은 전례없는 빠른 러시아어 동화 양상을 보였다. 고려말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80%의 응답자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16%만이 고려말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의 모국어 사용은 곧 그 언어가 정체성의 영역을 담당하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가정에서조차도 고려말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고려말의 불안정한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제1언어는 고려말이 아닌 러시아어이다. 심지어는 그들이 거주하는 독립 국가에서조차도 각 민족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상황도 흥미롭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려인의 현재 언어 양상을 더욱 들여다보며, 이들의 언어 선택 양상을 알아보고, 향후 고려인의 향후 언어 선택 양상을 전망할 예정이다.

소련 해체 후 각 독립국가에서 고려인은 현지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려인 신세대의 언어 변화 속도가 낮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도 앞서 언급된 고려인의 경제적, 실용적 언어 선택의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윤인진(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타슈켄트, 알마티와 같

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사마르칸트와 같은 지방 거주자보다 현지어 능력이 부족했다. 이는 곧 대도시에서는 현지어를 습득하지 않고 러시아어만 사용해도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언어 학습의 의지도 고려인, 현지어를 제치고 러시아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차순위로는 한국어가 대체로 꼽혔다(윤인진 2014: 80). 이는 곧 고려말의 향후 지위를 가늠케 해준다. 즉, 그들의 언어 선택에 있어서 고려말은 계속해서 순위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말의 선택이 고려인들의 경제적, 실용적 차원에서 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말을 선택한다면 이외의 러시아어, 현지어, 한국어 등을 추가로 배워야 하는 것은 오히려 실용성을 떨어뜨린다. 고려말은 따라서 그들의 정신적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려말은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인에게는 러시아어, 현지어 외에도 ‘한국어’라는 기회의 장이 열려있다.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는 새로운 외국어이다. 따라서 사회 진출 욕구가 높은 고려인에게 한국어는 새로운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어 사용국 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한국어를 선택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윤인진(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인 사회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언어로 한국어를 꼽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한국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차원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더욱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승철 1996: 63). 또한, 고려인 스스로도 고려말의 향후 지위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새로운 기회의 장 한국에서도 한국어가 고려말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윤인진 2014: 84).

결과적으로 고려말은 러시아어, 한국어에 밀려나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러시아어 선택 양상에서 벗어나서 한국어로의 언어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관계와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갈등하는 고려말, 한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현지어 사이에서 그들이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는 다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멸하고 있는 고려말을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고려인에게 있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멸하고 있는 고려말을 대체하기 위한 정체성의 보존을 위해서는 한국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고려인들이 자녀의 교육, 취업, 사회 진출 등의 사회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시키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어의 역할은 더욱 중대해진다.

#### IV. 결론

지금까지 소비에트 시기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고려인이 처한 언어 상황을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언어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려인의 이주 역사 이래로 고려인의 언어 동화 속도는 매우 빨랐고, 고려말은 점차 그 지위를 상실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고려인의 언어 선택의 요인을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실용적) 두 가지로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고려인의 러시아어 동화 양상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정체성이 아닌 경제

적(실용적) 요인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더해 고려인의 민족어인 고려말의 향후 지위에 관해 다루어보며, 고려인의 장래 한국어 선택 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고려인은 여타의 해외 거주 한인에 비해 그들이 겪은 역사의 굴곡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소련 시기 강제이주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으며, 갑작스러운 소련 해체를 경험하기도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의 체제가 바뀔 때마다 고려인은 자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주류 정체성의 기로 위에 서야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려인은 주류 사회의 요구, 또한 세계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들은 점차 빠르게 동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고려인은 여타의 소수 민족에 비해서 급속하게 빠른 러시아어 동화 양상을 보였으며, 빠른 민족어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언어 동화 양상은 정체성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한인들의 정체성 보존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민족어 교육, 신문 출간 그리고 민족 문학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했던 노력을 담아냈다. 하지만 이들은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한 사회 진출의 욕구, 자녀의 교육 문제, 경제적인 목적을 이유로 점차 도시로 이주했고, 따라서 러시아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고려인들은 그 자체로 수적 열세에 놓여져 있었던 소수 민족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자치행정을 인정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고려말의 지위는 불안정하다. 고려말은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경제적, 실용적 요인에 의해서 러시아어에 의해 대체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소련 해체 이후 민족 억압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고려말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독립 국가 내에서도 러시아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점은 고려말이 더이상 설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고려인의 경제적, 실용적 요인에 따른 언어 선택 양상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한국과 러시아어 사용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한국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어 선택의 분위기도 정체성의 요인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역할이 더욱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고려인의 언어 문제에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고려말이 한국어와 러시아어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체성과 경제적인 요인을 고루 잡기 위해서는 고려인이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 현재 한국이 고려인과의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끈끈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고려인의 언어 상황은 한국 사회에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소수 민족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다인종, 다민족이 거주하는 국가는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류 외의 민족은 끊임없이 자국민과 주류 사회와의 긴장감 속에서 관련한 선택의 기로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수도 상당하다. 한국은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을 원하는 동포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 주며, 이들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고려인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들의 언어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가?’라는 질문은 상당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 정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고려말’ 그리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현실과의 긴장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가 고려인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는 무엇일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언어 선택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이는 고려인의 역사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 체계 내에서 그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소수 민족의 언어 전망이 어떠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민족의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더 나아가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가 어떠한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 민족의 권리문제, 이들의 언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행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를 밝힌다.

## 참고문헌

- 강휘원. 2014. “다중 언어 정책의 필요성과 문화 다양성”. *우리말학회*. 76-93.
- 곽충구. 2009. “중아시아 고려말 소멸 과정의 한 양상 - 50대 고려말 화자의 경우”. *방언학*(10). 57-92.
- 김영술. 2020. “국내 거주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 연구”. *재외한인연구*(51). 31-68.
- 김정훈, 정덕준. 2006. “재외 한인문학 연구 - CIS 지역 한인 시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1). 339-370.
- 박선영. 2020. “신문 『선봉』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60.
- 송명희, 이상갑. 2009. “CIS 지역 고려인 소설의 정체성과 언어”. 131-146.
- 신명직. 2014. “다(多)공화국 인민에서 다(多)국가 시민으로 -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의 해체와 고려인”. *석당논총*(59). 65-109.
- 윤인진. 2014.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사회 정체성과 언어 사용 실태”. *재외한인연구*(33). 63-91.
- 이경숙. 2009. “러시아 한인의 정착과 마을학교”. *교육철학*(39). 159-190.
- 이종원. 2016. “연해주 고려인에게 있어서 한국어의 의미와 교육”. *교육학논총*(37). 21-44.
- 최한우. 2004. “통계로 본 러시아 고려인 사회”.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89-321.
- 허승철. 1996. “구소련 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1959, 1970, 1979, 1989년 인구센서스 언어 자료 분석”. *재외한인연구*(6). 40-65.